

남북 방송교류협력 현안과 방송정책 방향

문 중 환
동아방송대학 방송기술과

1. 서 론

방송과 교통, 통신의 발달은 지역간 거리와 소통에 걸리는 시간의 개념을 점점 가깝고 짧게 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체제의 벽도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가간, 지역간, 대륙간 협력에 의해 공존공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시대의 흐름이다. 다만 북한만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남아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내고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이다.

또한 21세기의 주력산업은 지식산업으로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통신, 출판, 프로그램 패키지 등 관련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매우 큰 부분으로 부각될 것이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중이다. 방송은 이들 산업들의 모체가 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 남북방송교류협력, 동북아의 화해, 평화와 경제, 문화권 형성, 방송 및 지식산업의 시장창출이라는 줄거리로 연계되며 21세기의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50년이 넘는 남북한 분단의 역사는 방송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더해가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국가체제로 출발선을 달리하였듯이 남북한의 방송은 방송의 기술적인 사항에 직접 연관되는 방송방식의 서로 다름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방송망의 구성, 방송출력의 구성, 방송관리 등 여러 가지 차이가 방송기술 관련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송기술의 내적 차이 외에도 방송의 기술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송 하드웨어 산업, 전자산업, 통신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차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방송의 교류협력을 어렵게하므로 이를 극복하고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르므로써 조성된 모든 기

반의 차이를 역으로 기반적 협력을 통하여 해소하려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방송기술 측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방송의 교류협력을 어렵게하는 요소에 대하여 논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현안과 극복방안 및 교류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남북한 방송기술의 현황과 차이

남북한은 정치체제에서부터 다른 갈래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방송 또한 이에 따라 남한은 미국, 일본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의 방송기술측면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서로 다른 면을 찾을 수 있다.

2.1 방송의 지향방향과 매체의 차이

해방이 되면서 남북한의 라디오방송은 정치체제의 수호 수단으로서 그 기능의 많은 부분을 할애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남한은 경제체제의 다름에서 오는 또 하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매체의 수용과 개발이 서로 많은 차이를 낳게 되었다.

2.2.1 방송 지향의 방향에 의한 비교

라디오방송은 출력의 증강과 송신방향이 각각 대치상태에 놓이고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이에 이용할 매체인 고출력 증파방송이 비교적 고출력화하여 남한지향성으로 증강되었으며 그 외의 매체는 발전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방송에서 다른 하나의 특징은 100%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는 유선 음성방송망이다.

2.2.2 방송 매체의 차이

북한의 정치 지향적 방송에 따른 북한내 방송의 발전이 더디었던 것에 비교하여 남한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매체발전이 있어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외에 케이블텔레비전, 위성방송 등이 실용화되었으며 여러 가지 뉴미디어 방송방식도 활발하게 개발되어 실용화

를 앞에 두고 있다.

2.2 방송방식의 다름

텔레비전방송의 방식은 남한이 NTSC, 북한이 PA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두가지 텔레비전방식 사이의 가장큰 차이는 1초에 화면에 비추는 화면의 수와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들 사이의 차이를 [표-1]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 카메라 등의 모든 제작장비와 송신설비와 수상기 등이 모두 같이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표-1〉 텔레비전 방식의 차이

항목	NTSC방식	PAL방식
1초당 화면의 수	30매	25매
1화면의 주사선 수	525개	625개
색의 전달 방법	색부반송파 방식	라인방식
주파수 대역폭	6MHz	8MHz

2.3 방송기술의 발전 정도

2.3.1. 방송현업기술 현황

남한의 경우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해외 교류등으로 방송제작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 특히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을 치루면서 방송 제작 시설 및 장비,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남한은 2002년에 월드컵 대회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에 일부 극연출 부문의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제작기술은 높이 평가되는 반면 일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기술은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3.2. 방송기반기술과 연구현황

남한의 경우 많은 방송매체가 출현하고 제작사의 수도 매우 많아지면서 이를 교육하는 학원(아카데미)과 대학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들이 개설되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오고 있다. 연구개발 기능 또한 각 방송국에 부설되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매체가 제한돼 있으며 거의 중앙 송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방송기술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관련 학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2.3.3. 방송산업기술 현황

남한의 경우 가전산업의 발달로 수신기기의 기술수준은 세계수준이다. 라디오, 텔레비전 수상기, 캠코더, 오디오 기기 등이 대량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제작기기는 일본, 미국 등의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모든 부분에서 매우 저조하며 납포 등에 조립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 생산력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2.4 방송구조와 기술관리

북한의 방송은 정무원 직속 조선방송위원회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다. 사업체계는 중앙당의 선전선동부나 통일선전부에서 방송업무자체를 지도조성하는 당체계 차원과, 체신부가 방송국의 시설, 기자재의 관리 및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고 운영하는 정무원 체계 차원의 이원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 방송위원회의 장은 당이 임명하여 체계적인 당의 이념을 관철해 내고 있다.

중앙 방송위원회의 산하에는 도, 시 방송위원회 및 군 방송위원회가 속해 있으며 라디오 및 TV 전국방송과 국제방송을 관장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조직으로서 조선노동당 중앙위 산하에는 평양 방송위원회가 있어 남한국민과 제일동포를 대상으로한 평양방송을 감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할 때 형식상의 방송국 행정과 기술관리는 정무원 산하의 체신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내용을 다루는 보도, 편집원들은 우리 사회의 '중립적 보고자'로서 개인의 주관적 편견이나 가치관 등이 기사에 개입되는 사전에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역동적으로 개입하여 당정책을 인민대중에게 선전하고 인민대중의 요구를 당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원들의 임무는 우리사회의 그것과 표면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3. 예상되는 교류협력의 과정과 문제점의 분석

지금까지 출처에 있어서 비공식, 공식의 북한물이 방송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녹화물을 편집해 내보낸 경우이다. 그만큼 아직은 북한 현장에서의 직접 방송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방송의 직접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비정치적 측면의 문화, 스포츠 등의 행사 녹화에서 시작되어 프로그램의 교환, 현장 녹화중계, 현장 직접중계 등으로 점차 발전되어갈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초기에 당분간은 장소나 프로그램의 성격, 방송방법 등에서 제한적인 교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쪽에 서서 방송관련교류의 이행에 대하여 살펴 본다.

직접 방송교류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앞선 환경의 조성으로서 방송설비 및 제작, 송출, 송신 등의 기술관련 교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방송프로그램의 교류협력

3.1.1 프로그램 패키지의 교류

교류협력의 처음 단계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교류활동은 녹화되어 있거나 그 성격에 있어서 비정치적인 문화행사, 스포츠 등의 녹화후 상당한 제약조건 아래에서 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기에는 방송의 직접교류라기 보다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식화라고 보는 형태이다. 방송물이나 프로그램의 녹화에는 간단한 ENG에서부터 복잡한 녹화차량 및 장비들이 필요하다.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휴대가 가능하며 좀 복잡한 시스템은 북한에서 제공될 것이다. 다만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방식을 우리의 NTSC로 바꾸어 방송하면 된다.

그러나 교류가 점점 늘어나게되면 북한의 현재 방송 운용 현황으로 보아 복잡한 시스템의 동시 다발적인 공급은 곤란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데는 남한에서의 시스템 반입과 기술지원이 불가피하다.

3.1.2 상호지역내에서 프로그램 제작

제한적이지만 북한지역에서 문화, 스포츠 행사외의 프로그램도 현지 녹화할 수 있는 시기이다. 녹화장비를 대여하기는 그 수속, 여유분의 보유 등 곤란한 여러 가지 점들이 많을 것이며 휴대하거나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남한으로부터 반입에 의해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3.1.3 상호지역에서 방송

상당한 신뢰의 회복이 진행된 시기에서 상호 협약에 의해 북한으로부터 동시 방송중계가 가능한 단계라고 본다. 이시기의 제작형태는 위와 같으나 상호 중계가 가능한 중계망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국가간의 중계처럼 국제중계망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욱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것이기 때문이다.

3.1.4 상호지역에서 방송교환

남북한의 방송국간에 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상당수의 중계와 통신망 개설이 필요하다. 물론 이시기에 민간부분의 통신과 자유왕래가 이루어질수도 있으나 국가간의 예로보아 앞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2 방송기술 관련 환경

3.2.1 방송제작, 송출, 송신 설비 및 이에 관련된 기술의 교류협력

북한의 방송설비는 구동구 등에서 들여와 1960년대에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발표가 있다. 그러나 동구산권의 쇠락 이후에는 정지한 듯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일본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의 시설은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편이나 지방의 경우에는 낡고 그 수명이 다하였다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방송설비, 기술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다. 북한방송의 수준을 높이려면 많은 방송설비의 보완과 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한 물적, 인적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3.2.2 방송의 수신기 보급 및 수신 산업기술 교류협력

북한에는 유선라디오방송이 거의 100% 보급되어 있다. 라디오방송 수신기는 약500만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반입된 것들이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적으로 각종 방송의 라디오 수신이 허용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 수상기는 약250만대 보급돼 있고 주로 일본과 중국의 PAL방식 수상기를 조립하여 몇만대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과 통신 등의 통제는 전자산업의 낙후를 불러오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며 경제에 큰 기여를 막아버리고 말았다. 80년대 말 들어 전자와 컴퓨터 등의 기술개발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를 받쳐 발전시키기에는 주변 환경의 조성이 안돼 견뎌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는 오디오, 텔레비전 등 방송관련 가전산업의 기술에 대하여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차츰 라디오와 전화 등 통신 관련 산업에 대한 협력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본다.

3.2.3 방송의 중계와 통신 설비 및 이에 관련된 기술의 교류협력

남북한의 방송교류협력이 직접중계녹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남북한 사이에 통신망을 통한 중계가 필요하다.

통신망에는 케이블, 무선, 통신위성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저렴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북한의 통신설비 및 기술은 민간부문에서 크게 낙후돼 있으며 남한의 설비 및 기술의 협력이 절실하다.

4. 방송교류협력의 현안과 정책방향

방송교류에서 현안이란 교류협력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극복,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극복, 향후 교류협력의 중국에서 발생할 문제의 극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문제나 극복방안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결국에는 모두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고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서 선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교류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사고를 전환함으로써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4.1 정책 방향의 기본 사고

4.1.1 대등적 사고

교류협력이란 어느 일방의 일이 아니고 쌍방간에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이 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번의 방송교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큰 뜻을 가질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이 방송의 수신 등에서 범위와 시청자의 수 등 수용대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실제 교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더욱 절실한 필요성을 갖게 된다.

남한과 북한의 방송에 대한 교류협력은 방송제작과 제작기술, 송출, 송신, 설비에 대한 기술 수준과 규모 등이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어느쪽이 어느쪽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과거에 남한의 경제개발 시기에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텔레비전 중계차와 카메라 세트 등을 무상으로 도입받아 사용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4.1.2 보완공영 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나 운용 체제가 절대 완벽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협력하고 보완 할 수 있다면 쌍방이 모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상호 필요한 부분에서 출발하여 점차 신뢰에 의한 교류협력부분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남한은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북한은 저렴한 생산력과 설비장소 제공 등을 할 수 있어 이의 결합이 가능한 방송관련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방송협력의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상승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4.1.3 산업우선 사고

21세기에는 방송, 영화, 출판, 컴퓨터통신 등이 멀티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식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전체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방송은 이러한 산업으로 발전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방송이 이제 정보, 교육, 오락 등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다루어야 해야 한다.

4.1.4 문화차이 사고

방송기술의 차이 즉 기술의 여러 가지 선진성 및 낙후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우리는 문화의 차이로 보아야 접근하기가 쉽다. 그리고 남북한의 모든 다른점을 이 문화의 차이로 보기를 본인은 바란다. 문화란 생활환경과 필요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보는 시각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충돌이 없고 이해와 융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4.2 부분별 현안과 정책방향

4.2.1 방송기술규격의 상이성

방송방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텔레비전방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남한은 NTSC TV방식이며 북한은 PAL TV방식이다. 이 방식의 다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중 하나는 페케이지의 교류, 방송의 중계 등에서 국제방송교류에서와 같은 자국방식으로 변환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에 물론 품질의 저하가 발생함도 어찌할 수 없다. 이외에 수상기의 보급에서 별도의 생산라인이나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며 송신기도 다른 규격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므로 2중의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류협력의 양이나 스피드는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장애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초기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 극복해야 한다.

처음 교류협력시기에는 프로그램의 양이 그리 많지

는 않을 것이므로 국제교류와 같이 방식변환을 해서 사용한다. 이후에 양이 많아지면 교류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방식변환소와 같은 서비스센터를 남북한 요소에 설치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수신상의 문제는 겸용 수상기를 당분간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후에는 방식의 통합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다행이도 디지털방식을 취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디지털 텔레비전 기기의 보급 및 기술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시대의 조류이기도 하여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경제적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일방식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4.2.2 방송기술적 상이성

현재의 북한 방송설비는 일부 중앙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경제사정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하여 동작에 문제있는 것들이 많으며 기술은 10년 이상 우리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북한 물의 방영시 얼핏 스쳐가는 스튜디오 상태에서 알 수도 있다. 또한 물자가 귀하여 마음대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없는 북한의 70년대 초의 환경과 비슷하다고 본다.

이러한 북한의 사정을 보아 교류협력의 단계를 정한다면 우선 북한의 방송설비에 드는 기초 또는 제작에 필요한 방송기자재와 기술의 협력이 북한에 필요하다. 이후에 북한방송의 송·수신망의 정비와 이의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방송현대화와 남한 방송 수준으로의 향상을 같이 협의해야 한다.

4.2.3 방송출력과 적정선

남북한은 지금까지 대전력 중파송신소를 각각 상대 수신이 잘되는 방향으로 증강해 왔다. 또한 방해파를 방사해 상대 방송의 수신을 곤란하도록 해 왔다. 이러한 방송은 교류협력시에 저해요인이며 전력의 낭비와 전파의 유용한 이용에 반하는 방송이다. 남북은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출력을 적정선으로 낮추고 방향을 바꾸고 방해파 방송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아 남는 비용으로 교류협력과 기술발전등에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상당한 신뢰의 축적 가운데서 가능하므로 여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해야 한다.

4.2.4 방송기술 관리의 상이성

남한은 그동안 방송의 민주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기술관리 또한 공사 또는 민방의 자유로운 기술투자의 의사결정으로 적정한 기술설비 투자와 기술개발 및 자체유지보수,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유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상당한 기술적 노우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체제상 방송기술이 목적하는 방송의 수행에만 전념되어 미래지향적 새로운 방송기술의 개발이 필요없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남한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방송장비의 교체, 유지보수 등의 기술을 이전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 제작, 송출 기술 등을 협력하여 우리와 비슷한 기술력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4.2.5 뉴미디어 관련

북한은 기존의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 외에는 이렇다할 방송 뉴미디어를 아직 개발하거나 시험중에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남한은 케이블텔레비전, 위성방송, HDTV방송 등의 아직 효과를 모두 거두어 들이지 못한 뉴미디어기술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다. 여기에 투자된 재원 또한 막대하여 그저 그 결실이 있기만을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은 뉴미디어를 통하여 방송의 일체성을 시도하고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며 그 결실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4.2.6 교류협력의 기술관련 환경의 조성

전자/방송/통신 등 기술과 산업

방송기술은 그 기본기술을 전기, 전자, 통신기술 쪽에 두고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직접방송에 사용되는 방송기기산업과 수신 및 음향, 영상 기기 산업이라 일컫는 가전산업의 발전에 의존해서 방송시장의 확대를 이루어가고 있다.

남한의 가전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그렇지 못한 처지이고 주로 유선 라디오방송에 의존하다보니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거나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가전산업의 수요와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남한의 방송기기 제조사와 가전기기 제조사는 방송의 교류에 앞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한 꾸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에서 수해지구나 농촌의 시청자들이 TV수상기의 고장 수리를 필요로 할 때에 방송국과 가전사들이 합동으로 무상 서비스를 했던 사례가 여기 적용될 수

있는 그 한가지 예라고 본다. 한편 라디오의 경우에는 많은 대수의 보급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배터리 등이 수급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가 정도 설득력이 있다.

4.2.7 통일에 대비한 준비

1) 통일의 과정

통일의 과정은 남북한간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하다. 통일의 과정은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자하는 교류협력과 경제의 발전을 거쳐 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또한 상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국가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국가의 운명을 그 국가의 지도자가 책임을 질 수 없을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그것은 단기간에 일어날 남북의 충돌없는, 평화적이라 할지라도 준비없는 비상 상태의 통일과정이다.

2) 교류협력과 통합

남북한이 교류협력의 오랜 기간을 거쳐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왕래와 협력을 거쳐서 자연스러운 통합의 과정을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기술과 산업측면에서 이의 진전을 위한 과정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우선 북한의 방송에 대한 부족한 기자재의 협력 및 지원
- (2) 애로기술의 교류와 협력(방송 및 방송 수신)
- (3) 부족한 방송가전품의 협력과 산업기술의 지원을 통한 북한산 방송 및 가전품의 수출
- (4) 프로그램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 (5) 프로그램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애로기술의 협력
- (6) 방송중계, 교환을 위한 기자재 및 애로기술의 지원과 협력

3) 단기간의 교류협력후 통일

북한의 사회와 경제체제가 매우 불안정화하여 독일과 같은 단기간내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남한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을 경우이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나 수용해야만 하고 국가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우선 북한 사회의 안정을 단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방송이 역할을 하여야 하며 기술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상태를 가정하면 매우 불안정하여 통신과 방송중계망 및 우선 라디오 중계망이 손상되어 있

어

- (1) 북한내부의 방송이 북한 전역에 전달되지 못하고
- (2) 일부 방송의 송신이 가능하나 수신기의 보급이 적어 일부 사람들만이 수신이 가능
- (3) 남한의 방송도 같은 상태로 수신이 어렵고 텔레비전 방송은 휴전선 인근에서 가능하나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수신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야 할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북한의 중앙정부가 남한에 협조적일 것을 가정하여 수립한다.(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서 적절한 규모를 상정하여 준비하고 시행시의 절차와 방법 등도 연구되어 여러 가지 사태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큰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 (1) 라디오 수신기의 비축 및 살포
- (2)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차의 제작 및 지원(TV인 경우 PAL방식)
- (3) 북한의 방송망 및 중계망 정비를 위한 기자재 비축 및 지원
- (4) 방송위성을 이용한 광역방송망의 구성

이러한 준비와 사태에 적용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정상적인 교류협력의 시대에 진행해야할 사항들에 대하여 완급을 조절하여 시행해야 한다.

5. 결 론

이 시대는 그리고 앞으로의 상당기간의 시대는 경제와 사회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중의 하나로 규명된다. 이는 변화가 급하고 예측하는 데 변수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관념으로는 버텨내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근거에서 북한은 중국과 유사한 개방화 길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가정해 본다.

북한 사회가 변화되어 경제 발전을 꾀하던가 아니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던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였을 때에 우리는 우리자신을 위한, 인접한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21세기에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식산업의 선진국으로 진입해야할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동북아의 평화유지와 산업시장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잠재시장으로 들어가는 지리적, 정치적 길목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하며 소홀히 해서 안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의 기본시각과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 방송교류협력이 미래의 남북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5.1 기본 시각

인접지역의 안정, 교류, 산업의 진흥 등, 우리는 우선 평화롭고 운택하고 안정된 경제 부국을 원하고 있다.

안보와 방어적 교류에서 산업협력과 행복추구 차원의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전파의 이용, 프로그램의 교류, 인적교류의 자유화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의 서로 다른 체제와 견해의 상이한 점들에 대해서는 대립과 배타적 견해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 존재의 성립과 문화의 차이 이해 차원에서 이를 포괄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안정과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다시 남북교류협력과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2 환경의 조성의 우선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민족과 지역주의가 국제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과 세계가 공동체, 협력체화하는 사회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방송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이 방송교류협력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선 기술측면의 협력이 고려될 수 있다. 방송기술, 관련 산업기술의 협력이 가능하다면 신뢰와 기술적 환경조성 가운데 방송교류협력의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3 직접 기술관련 극복방안

방송교류협력 과정의 초기에는 규모에 따라서 후대나 상호지원이 가능하며 남한의 지원이 더욱 요청된다. 이후에 교류협력이 본격화 된다면 프로그램의 제작, 중계, 방송에 관련된 노후 기기의 교체와 운용기술의 협력, 중계망의 구성(M/W/위성/케이블)이 필요하다. 중계망의 구성에는 무궁화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안중의 하나이다. 장기적으로는 TV방식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를 통합방식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4 간접 환경의 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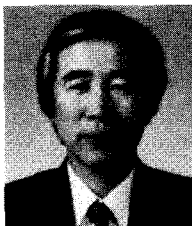
북한의 방송, 통신기기 확충에 남한기술의 협력, 민수용 수신기기 배려와 이에 더하여 방송, 전자 산업의 협력에 의해 북한의 방송수신환경과 관련 전자, 통신산업의 부양을 통하여 남한의 기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원하던 원하지 않던 최근접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시에 대비하여 방안을 준비하여 대처하고, 정상적인 교류협력은 그 환경의 조성, 신뢰의 구축위에서 교류협력의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경세, 이창현, 류지석, 최종화, 문종환, 박종일, "통일에 대비한 방송체계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4.12.
- [2] 김덕진, 김영성, 문종환, 임채욱, 박인갑, 송재극, 정경훈,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제반 기술과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2.12.
- [3] 김종웅, "구조 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총서 95-06, 1995.9.
- [4] 박명진, 강현두, 장익진, 장달중, 권영민, 전홍택, 정창기, 문종환,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접근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1994.2.

필자소개



문 종 환

- 1975년 2월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 1987년 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공학석사
- 1974년 12월 ~ 1995년 11월 한국방송공사 입사, 기술연구소 방식연구 책임연구원
- 1997년 3월 ~ 현재 동아방송대학 방송기술과 교수
현재 동아방송대학 매체연구소 소장
- 주관심분야 : 방송시스템, 디지털영상신호처리